

PVC 착색제 공장 화재사고

경남 양산시 풍경정화 자재창고에서 ... 800평 태워

6월17일 오전 9시30분쯤 경남 양산시 어곡동에 소재한 PVC 착색제 제조기업 풍경정화의 자재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지상 2층 800평 규모의 자재창고와 창고 안에 있던 화학제품 원료 등을 태워 수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꺼졌다. 종업원 90여명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이 나자 소방차 30여대와 소방관 200여명이 진화작업에 나섰지만 인화성이 강한 화학제품 원료들이 타면서 뿜어져 나오는 유독성 연기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장 안 화학원자재 탱크로 불이 옮겨붙으면 폭발할 위험이 있어 한때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명령을 내리고 차량을 통제했다.

풍경정화는 착색제, 그라비아잉크, 표면처리제, PVC 컴파운드 등을 생산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4/06/18>